

나의 필수 유틸 #2 : IrfanView



단순 이미지 뷰어라고 하기에 벅찰 정도로 다양한 기능을 갖추었으나 용량은 매우 작다. 덩치 큰 이미지 뷰어가 싫다면 강력 추천!

용량은 작지만 강력한 기능과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이미지 뷰어입니다.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는데 바로 IrfanView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기본 이미지 파일 포맷인 BMP/GIF/JPG 등은 물론 AVI/MOV/MPEG 등 동영상 파일과 WAV/AIF/MID/RMI 등 사운드 파일을 포함하여 50가지 이상의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용량에 비해 이렇게 강력한 기능을 갖췄다는 점이 놀라울 뿐입니다.



이미지를 아이콘 파일(ICO)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모두 18가지 파일 포맷으로 일괄변환(Batch Conversion)하고, 파일명 변환으로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급 옵션으로 들어가면 사이즈 조절, 색상 수 선택, 좌/우 돌리기 등 단순히 파일 포맷을 변환하는 것에서 탈피해 좀 더 실속있는 파일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GIF 파일은 각 프레임을 BMP 파일로 자동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폴더 안 이미지를 썸네일로 미리 보거나 특정 이미지 미리 보기, 배경무늬로 전환, 슬라이드 쇼, 스캐?지원 등 이미지 뷰어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기능 외에도 화면 캡처, 이미지 리터칭, 포토샵 필터 지원, 아이콘 추출 등 뷰어 이상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동영상 재생에서도 AVI 정도는 가볍게 처리하고 MPG/MOV 파일에서 프레임을 추출하는 등 여러모로 알차니다.

이녀석은 외관과는 다르게 정말 쓸만하다. 5년전부터 사용해 오던 나는 지금도 판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난 이 유틸을 뷰어로 쓰지 않는다. 뷰어로서는 광이다. 하지만 간단한 편집기로서는 포토샵 싸대기를

날리고도 남을 만큼 훌륭 하다. 매우 간편한 편집기능과 리사이즈기능,
이미지 압축, 부분편집, 두장합치기, 잘라내기, 포맷변환등 평션키가
필요없는 단축키의 조화는 기가막힌다. 특히 하드카피프로와 같이 사용하면
금상첨화. 폴더내의 BMP파일을 몽창 JPG로 바꿀일이 있다면 이녀석에게
마끼자... 당신이 웹용으로 빠른 이미지 편집툴을 찾는다면
초강추!(퀄리티와는 거리가 멀다 —.—)

개발사 : <http://www.irfanview.com/>